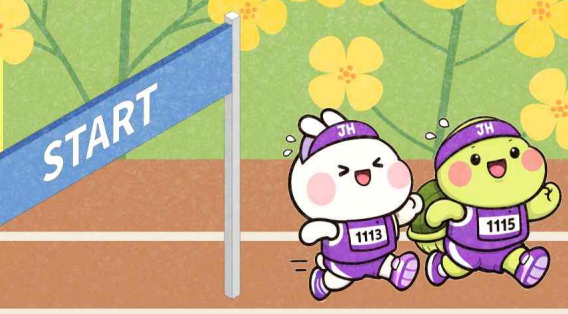
2026 MARATHON's Monthly

APRIL

- 마라톤국어 4월 과제집
- 1일 1과제 1코칭을 통한 독해력 훈련
- 문학&비문학 교차 구성을 통한 실전 감각 함양



1일 1지문 1코칭 1등급
RUN

마라톤 커리큘럼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현대 소설	인문 예술	고전 시가	필수 어휘 TEST
5	6	7	8	9	10	11
주간 복습	사회 문화	현대 시가	과학 기술	고전 소설	인문 예술	필수 어휘 TEST
12	13	14	15	16	17	18
주간 복습	현대 소설	사회 문화	고전 시가	과학 기술	현대 시가	필수 어휘 TEST
19	20	21	22	23	24	25
주간 복습	인문 예술	고전 소설	사회 문화	현대 소설	과학 기술	필수 어휘 TEST
26	27	28	29	30		
주간 복습	고전 시가	인문 예술	현대 시가	사회 문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부법

1일 1지문 · 1코칭

국어 마라톤은 단순히 하루 한 지문을 읽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국어 강사로 살아오며 쌓아온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현장에서 다듬어진 실전 감각과 내공이 모두 녹아 있는 공부법입니다.

독해력은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반복을 통해서만 길러집니다.

하루의 루틴이 쌓여 결국 성적으로 증명되는 구조,
그 과정은 이미 수천 명의 학습 결과로 검증되었습니다.

이 마라톤을 통해 스스로의 변화를 분명히 체감하는
의미 있는 성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의 옆에서,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마라톤 국어팀 드림

마라톤 과제 제출법 가이드 [한 장 요약]

1. 마라톤 웹에서 업로드 된 과제 다운로드 [패드 풀이 혹은 인쇄 풀이 중 선택]
- www.marathonstyduy.com 으로 접속하여 부여받은 핀번호로 클래스에 입장 후 과제를 다운로드합니다.
- pdf 다운 받아 패드에 넣어 풀어도 되고, 인쇄하셔서 풀이하셔도 됩니다.
- 매일밤 24시에 업로드됩니다. [업로드 시간 변경되는 경우 저희가 사전 공지 해 드립니다.]
- 휴대폰, 패드, 노트북, 데스크탑 등 모든 기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삼성 브라우저의 호환이 일부 불안정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정 접속 현상 발생 시 크롬 사용을 권장합니다.

2. 과제 풀이 완료 [평균 10분~15분]
- 과제를 풀 때에는 "순수 풀이 시간"을 측정합니다.
- 시간을 재되 제한시간 안에 풀지 못했다고 해서 찍지는 않습니다.
- 시간을 재는 이유는 나의 풀이시간을 스스로 파악하기 위함 + 집중력 발휘, 실전 감각 함양을 위함입니다.

3. 채점 + 오답정리 + 지문 장악 [평균 15~30분]
- 오답 정리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3단 오답정리법"을 진행합니다.
- 지문 장악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문학, 비문학 지문을 깊게 이해하려 노력하며 오답정리합니다.
- 선생님의 영상은 단순 문제 풀이가 아니라, 학생이 먼저 충분히 고민하고 학습했다는 것을 전제로 제공되는 실전 피드백 코칭입니다.
- 스스로 지문과 문제를 이해하려는 과정이 잘 선행될수록, 이후 코칭 영상의 이해도와 학습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3. 코칭 영상 시청 [평균 15분]
- 영상 속 필기는 필기노트에 있으므로 눈과 귀로만 즐겁게 라디오 듣는 느낌으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 나의 풀이와의 공통점, 차이점을 생각하며 필기보다는 사고하며 이해에 초점을 맞춥니다.
- 영상 속에는 선생님의 퀴즈가 숨어있습니다. 답변 기억하셨다가 제출 시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4. 필기노트 보며 내 과제에 샘 필기 주요 부분만 추가로 적어넣기 [평균 5~10분]
- 영상 시청 후 필기노트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 필기노트를 펴고 한번 읽으며 이해했던 내용을 상기합니다.
- 모든 부분이 아닌 내게 부족한 부분들을 나의 과제집에 옮겨 필기합니다.

5. 마라톤 웹에다가 마감 시간 내에 과제 제출
- 필기노트의 주요부분까지 필기 완료된 나의 과제집을 마감 시간 내 제출합니다.
- 패드 풀이의 경우 화면 캡쳐 방식으로, 인쇄 풀이의 경우 사진 촬영의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 본인의 풀이가 잘 보이게 촬영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답정리와 코칭 영상 시청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질문을 선생님께 1:1로 합니다.
- 질문이 없는 경우에도 선생님과 가벼운 스몰토크! 안부 인사 및 소통 적극 환영입니다!

5. 다음날 선생님이 채점 후 주신 피드백을 확인합니다.
- 선생님이 현장 수업 후 새벽에 주로 채점합니다. 직접 다 읽어보시고 1:1 피드백을 드립니다.
- 평균 익일에 선생님의 피드백이 도착합니다.
- 추가 질문은 다음날 과제 제출 시에 언제든 해주시면 됩니다.

→ 위 1일 1지문 1코칭의 과정을 데일리로 반복하며 루틴과 실력을 만들어 갑니다.

1일 1문장의 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모든 실패는 주인공의 성공을 위한 복선이다.

1일 1지문의 힘

[이상적 소요시간 : 6M 30S]

▣ 문학 - 갈래복합 (32506)

(가)

화룡담 깊은 못이 너럭바위 아래 있어
뿜으며 들썩이며 변화가 무궁하다
[A]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龍沼)를 굽어보되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 들으니
저 바위의 사자가 화룡더러 말하기를
이내 몸 육중하여 무너져 내려가면
너의 깊은 **못**이 터전도 없을 테니
네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발 조금 고여 다오
화룡이 옳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괴었다 하네
들으니 그럴듯해 건넛산 바라보니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이 돌 같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
(중략)
한참을 구경하고 도로 내려 금강문에
남여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고개 넘어서서 **오 리 남짓** 가니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 지었기에
문 열고 구경하니 상하탕(上下湯)이 늘어 놓여
넓적한 돌 네모지게 두 군데 똑같이 짜고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하네
보슬비 계속 내려 주점에서 머물고
이십일 일 조반 후에 날 흐리고 안개 덮여
만물초 구경하려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指路僧)과 **주막 주인** 붙들고 **만류**하되
ⓐ 만물초 가는 길이 칠십 리 왕복이요
청명한 일기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랴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들어가서
산 밑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으리오
들으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 하여
봉래의 후약을 만물초에 남겨 두고
행장을 다시 차려 **총석으로 향할 제**
금강 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만 이천 봉 빛이 눈앞에 역력하다

- 홍정유, 동유가 -.

(나)

7월 3일(금)

총석정은 다음 날 와서 찾아가기로 하고 송전(松田)으로 오다. 송전처럼 좋은 데가 왜 아직 이름이 못 났을까. 왜 깨끗한 여관 하나, 세별장(貰別莊) 하나 없을까. 단 두 집의 여관, 모두 여인숙급인데 하나는 이름이 없고 하나는 '**동해여관**'이라 대서 (大書)하였다. 이름 있는 집으로 정하다.

고저(庫低)가 곳간 바닥 그대로인 듯이 송전은 솔밭 그대로다. 거리도 반은 솔밭 속에 묻히었다. 해풍에 자란 솔들이라 통만 굵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드리워서 파라솔이라도 아주 요즘 유행형들이다. 그 밑에 돗자리나 깔아 놓으면 소나무 하나 마다가 훌륭한 정자겠다.

솔만 보면 봄인 듯하다. 그렇게 푸르기만 하지 않고 **윤택하다**.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하다. 그렇게 모새가 보드랍지만 않고 쟁쟁 소리가 날 듯 양명(陽明)하다.

거리에서 ⓑ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게다. 그러나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 본 적이 없다. 혼례식장 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싶은 그런 길이다. 이 길이 끝나면 천공(天空), 해활(海闊), 거기엔 떡 뻗치고 선 것이 하나 있으니 초현실파의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되 배경에 조화되어 버린 철봉이 하나, 나는 뛰어가 매달리어 턱걸이를 겨우 네 번을 하다.

바다는 물결이 세다. 뽀—얀 수말(水沫)은 눈보라처럼 해안을 올려 쓴다. 해당화가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군데군데서 나부낀다. 향기도 강하건만 파도 냄새에 묻혀 꺾어 들어야 코를 찌른다. 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다.

밤에 창이 하 밝기에 **주인**에게 물으니 **보름달**이라 한다. 홀 고의적삼이 추우리만치 **산산**하나 다시 **여관을 나섰다**.

낮에도 텅— 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다. 달빛만이 꽉— 차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달의 물결이 솨— 솨— 하고 흩어지는 것 같다. 길뿐이 아니라 솔밭 위에도, 철로 위에도, 으리으리한 바다 위에도, 달은 또한 큰 바다이다. 이 달의 바다 아래에선 물의 바다는 너무나 조그맣구나! 그리고 달의 바다는 너무나 성스럽구나!

새 한 마리 노래하지 않는 솔밭, 들창 하나 열리지 않은 빈 별장들, 누구를 위해 달은 이처럼 밝아 있는가? 사람이야 나와서 보건 말건, 정물(情物)이 아닌 파도만 치는 곳에, 달은 이렇듯 밝아 있구나.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달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널리 비치고 있는 것일까? 끝없는 사막, 끝없는 해양, 그리고 무인고도(無人孤島)들, 높은 산봉우리들, 남북극지의 빙원들, 또 그리고 무수한 천공에 달린 별의 세계들, 참 달은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무심하구나! 사람이,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이 제가 공연히 그에게 정을 두도다.

- 이태준, 해촌 일지 -

* 모새 : 가늘고 고운 모래.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에서 덕성을 발견하여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②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자연물의 모습에 주목하여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자연물 간의 조화로움에 빗대어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⑤ 자연의 극한적 상황을 제시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화자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다.
② ⓑ는 글쓴이가 걷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는 길이다.
③ ⓐ는 화자가 가려던 길이고, ⓑ는 글쓴이가 가고 있는 길이다.
④ ⓐ는 화자가 일행을 찾아 떠나는 길이고, ⓑ는 글쓴이가 일행을 마중하러 나가는 길이다.
⑤ ⓐ와 ⓑ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걷기에 편한 길이다.

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화자는 '용소' 위에 있는 '사자봉'의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②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사자봉' 중턱 파인 곳의 위치가 사자 형상의 발밑임을 제시하고 있다.
③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파인 곳에 끼어 있는 '돌 하나'는 '못'의 용이 재주를 부려 옮긴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④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자신이 '건너편 산'에 올라가 '사자봉'을 바라보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⑤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산 중턱의 '틈'과 '이 돌'을 견주면서 그 크기가 유사함을 제시하고 있다.

4. (나)의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솔'의 생김새에서 '파라솔'을 연상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떠올리고 있다.
② '초현실파의 그림' 같은 공간에서 '뛰어가'며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③ '뽀—얀' 물거품이 '눈보라처럼' 피지는 바닷가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젊음과 연결하고 있다.
④ 밤 풍경 위를 채운 '달빛'을 '달의 물결'로 인식하면서, 세상 곳곳을 비추는 달의 속성을 발견하고 있다.
⑤ '끝없는 사막'과 '별의 세계'에 미치는 달빛을 '사람'의 미미함과 대비하면서, 달빛의 무한함에 대해 사색하고 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기행 주체는 여행 장소의 풍경이나 풍속, 사람들과의 만남 등을 체험하면서 감흥을 얻는다. (가)와 (나)의 기행 주체는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가)에는 여행 장소에서의 체험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려는, (나)에는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기울인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양상이 주로 나타난다.

① (가)는 '점심을 먹은 후'에 '극락고개'를 넘어 '오 리 남짓' 가는 것으로 표현한 데서, 시간의 순서에 따른 장소의 이동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려는 양상이 드러나는군.
② (나)는 '솔'의 모습을 '푸르고 '윤택하다'고 표현한 데서,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갖게 된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양상이 드러나는군.
③ (가)는 '우물집'을 '문 열고 구경하'는 데서, (나)는 '산산'함에도 '여관을 나섰다'는 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④ (가)는 '조반' 먹은 것을 '이십일 일'로, (나)는 '동해여관'으로 숙소를 정한 것을 '7월 3일(금)'으로 날짜를 밝혀 기록한 데서, 여정의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했음이 드러나는군.
⑤ (가)는 '주막 주인'이 '만류'한 일을, (나)는 '주인'이 '보름달'이라 답한 일을 기록한 데서, 여정 중의 만남에서 정보를 얻은 경험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1일 1 지문 장악의 힘

[문풀&오답 후 강의를 보기 전 간단히]

■ 파트 별 지문 장악법 [쌤의 필기노트와 비교해 보며 공부]

- 문학 : "줄거리와 인물 심리" 위주로 자유로이 지문 요약
- 독서 : "문단 별 중심 내용 위주"로 자유로이 지문 요약

(나)



(가)



삶상: 사면 천화

1일 1코칭의 힘

[문풀&오답 후에 강의를 본 뒤에 작성]

■ 데일리 퀴즈 [코칭 영상 속 퀴즈에 대한 답변을 적어주세요.]

-질문?

-답변?

정답 및 해설

i▣ 2025년 6월 시행 평가원 모의고사 고전시가

[22-26] 갈래 복합 - (가) 홍정유, '동유가' / (나) 이태준, '해촌일지'

지문해설 : (가)는 일기 형식을 차용하여 금강산까지의 여정과 금강산 및 그 주변 지역을 유람한 경험에 대해 적은 국문 기행 가사이다. 날짜별 여정, 경유지에 대한 견문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성격을 보여 준다. 전기 기행 가사에서 흔히 보이는 서정성과 유교 이념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여행지의 자연 풍경과 여행지 지역민들의 삶에 대한 견문은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더불어 몇몇 관찰 대상에 대해서는 작가의 주관적인 평가를 가미함으로써 작품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주제] 금강산 유람 경험과 금강산의 빼어난 경치에 대한 감동

동유가 현대어 해석본

화룡담 깊은 못이 너럭바위 아래 있어
→ 화룡담이라는 깊은 연못이 넓은 바위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데
뿜으며 들썩이며 변화가 무궁하다
→ 물이 뿜어 오르며 출렁이고, 그 모습이 끝없이 변화무쌍하다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를 굽어보되
→ 사자봉에 있는 높다란 바위가 용소(용이 산다는 못)를 내려다보는데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
→ 그 바위 중간쯤 움푹 파인 틈에 돌 하나가 끼워져 있다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 들으니
→ 절에 있던 스님의 말이 황당했지만 대강 걸러 들어 보니
저 바위의 사자가 화룡더러 말하기를
→ 그 바위 모양의 사자가 화룡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이내 몸 육중하여 무너져 내려가면
→ 내가 워낙 무거워 무너지게 되면
너의 깊은 못이 터전도 없을 테니
→ 네가 있는 이 깊은 못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네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발 조금 고여 다오
→ 네가 재주가 많다니 내 발 밑을 좀 괴어 다오
화룡이 옳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 화룡이 그 말에 동의해서 건너편 산으로 올라가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괴었다 하네
→ 거기에서 돌을 하나 빼어 와 이 바위를 괴었다고 한다
들으니 그럴듯해 건넛산 바라보니
→ 그 이야기가 제법 그럴듯해 보여 건너 산을 바라보니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 실제로 산 중턱에 돌 하나가 빠진 자리가 있고
이 돌 갖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
→ 지금 있는 돌과 크기가 딱 맞는 듯하다
(중략)
한참을 구경하고 도로 내려 금강문에
→ 한참 구경을 한 후 다시 내려와 금강문에 도착해
남여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 가마를 타고 절에 와 점심을 먹은 후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 만물초로 가려면 온정을 지난다고 하여
극락고개 넘어서서 오 리 남짓 가니
→ 극락고개를 넘어 약 5리쯤 가니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 지었기에
→ 주막집 근처에 우물터가 마련되어 있기에
문 열고 구경하니 상하탕이 늘어 놓여
→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상탕과 하탕이 나란히 놓여 있고
넓적한 돌 네모지게 두 군데 똑같이 짜고
→ 네모진 넓은 돌로 두 군데가 똑같이 만들어져 있으며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하네
→ 물빛은 탁하고 온도는 미지근하다고 한다
보슬비 계속 내려 주점에서 머물고
→ 보슬비가 계속 내려 주막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십일 일 조반 후에 날 흐리고 안개 덮여
→ 21일 아침을 먹고 나니 날씨가 흐리고 안개가 덮였다
만물초 구경하려 준비하고 내려가니
→ 만물초를 구경하려 준비하여 내려가려 하니
지로승과 주막 주인 붙들고 만류하되
→ 길 안내 승려와 주막 주인이 우리를 붙잡고 말리며 말하기를
ⓐ 만물초 가는 길이 칠십 리 왕복이요
→ 만물초까지 갔다 오려면 70리나 되며
청명한 일기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 날씨가 맑아도 구름이 끼면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랴
→ 하물며 비 오는 날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들어가서
→ 미끄러운 돌사다리를 타고 힘들게 들어갔다가
산 밑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으리오
→ 산 아래만 보고 끝나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들으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 하여
→ 이야기가 일리 있어 일행들도 수긍하고
봉래의 후약을 만물초에 남겨 두고
→ 봉래의 뒷구경은 만물초에 미루어 두고
행장을 다시 차려 총석으로 향할 제
→ 다시 짐을 꾸려 총석정으로 향하려 하니
금강 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 금강산 안팎의 산들과 여기서 작별하게 되고
만 이천 봉 빛이 눈앞에 역력하다
→ 금강산의 1만 2천 봉우리의 풍경이 눈앞에 또렷하게 떠오른다

지문해설 : (나)는 글쓴이가 동해의 명소를 기행한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쓴 수필이다. 지문에 실린 내용에서는 관동 팔경 중의 하나인 '총석정'을 방문하기 전에 들른 '송전'에서, 글쓴이가 관심을 기울인 '솔'이나 '바다', '보름달' 등의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을 밤에 다시 방문하여 '달빛'을 '달의 물결'로 인식하면서 세상 곳곳을 비추는 달의 속성을 성스럽게 여기는 대목은 글쓴이의 감흥을 세밀하게 전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주제] 동해를 기행하면서 느끼는 감흥과 자연 친화적 태도

I.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는 '용소' 위에 있는 '사자봉'의 중턱 파인 곳의 '돌 하나'의 모습에, (나)는 '솔', '바다', '보름달' 등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자연물의 모습에 주목하며 그것에 대한 관심과 정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연물에서 덕성을 발견하는 내용은 (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 세상 곳곳을 비추는 속성을 달의 덕성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가)와 (나)에 계절의 변화를 제시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솔만 보면 봄인 듯하다. 그렇게 푸르기만 하지 않고 윤택하다.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하다. 그렇게 모새가 보드랍지만 않고 쟁쟁 소리가 날 듯 양 명하다.'는 계절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솔밭

의 정경에 대한 묘사에 해당한다. ④ (가)와 (나)에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에서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랴'라는 표현을 통해 비가 오면 경치를 보기 힘들다는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만 자연의 극한적 상황을 제시하거나 이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 자연의 극한적 상황이 제시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2. [출제의도]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 화자는 '만물초'를 구경하려고 했으나 비가 오기 때문에 경치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사다리도 미끄러울 것이라며 '지로승과 주막 주인'이 만류 하는 바람에 방문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므로 ⓐ는 화자가 가려던 길로 볼 수 있다. (나)의 ⓑ는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 본 적이 없다.', '이 길이 끝나면 천공, 해활, 거기엔 떡 뻗치고 선 것이 하나 있으니' 등을 통해 글쓴이가 가고 있는 길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청명한 일기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랴'로 볼 때, ⓐ는 현재 날씨의 영향을 받아 화자가 갈 수 없는 길이다. ② '낮 에도 텅— 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다.'로 볼 때, ⓑ에서 글쓴이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들으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 하여 / 봉래의 후약을 만물초에 남겨 두고'로 볼 때, (가)의 화자는 일행들과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글쓴이가 마음에 들어 낮과 밤에 혼자 계속 걷는 길로, 일행을 마중하러 나가는 길이 아니다. ⑤ ⓑ는 글쓴이가 걸으면서 감흥을 느끼는 편한 길로 볼 수 있으나, ⓐ는 비로 인해 걷기를 포기한 길이므로, 편한 길로 볼 수 없다.

3.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

*현장 오답률 10위 문제 [선지별 선택 비율]

오답률	①	②	③	④	⑤
40.4%	3.3%	19.4%	15%	59.6%	2.7%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중'에게 전해 들은 말 중에서 '화룡이 옳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를 통해 '건너편 산'에 올라간 것은 화룡임을 알 수 있고, '들으니 그럴듯해 건넛산 바라보니'를 통해 화자가 사자봉에서 '건너편 산'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를 굽어보되 /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네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발 조금 고여 다오'를 통해 사자 형상의 발밑에 돌이 끼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돌의 위치는 사자봉 파인 곳이다. ③ '화룡이 옳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괴었다 하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 이 돌 갖 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작중 상황의 파악

*현장 오답률 13위 문제 [선지별 선택 비율]

오답률	①	②	③	④	⑤
37.0%	6.6%	63.0%	8.4%	7.7%	14.4%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글쓴이는 바다로 나가는 정하고 고운 길을 걸으면서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가는 길이 끝나는 곳에 세워진 철봉을 '초현실파의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라 표현하면서 그 철봉에 '뛰어가 매달리어 턱걸이를' 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통만 굵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드리워서 파라솔이라도 아주 요즘 유행형들이다. 그 밑에 돗자리나 깔아 놓으면 소나무 하나마다가 훌륭한 정자겠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뽀—얀 수말은 눈보라처럼 해안을 올려 쓴다.', '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달빛만이 꽉— 차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달의 물결이 솨— 솨— 하고 흩어지는 것 같다.',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달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널리 비치고 있는 것일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끝없는 사막, 끝없는 해양, 그리고 무인고도들, 높은 산봉우리들, 남북극지의 빙원들, ~ 사람이,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이 제가 공연히 그에게 정을 두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 글쓴이가 '산산'함에도 '여관을 나섰다'는 것은 낮에 걸었던 장소인 '바다로 나가는 길'을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의 '우물집'을 '문 열고 구경하'는 것은 주막집 바로 곁의 장소를 구경한 것이지,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간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점심을 먹은 후'라는 시간의 표지를 제시한 후 '극락고개'를 넘어 '오 리 남짓' 이동하는 과정을 표현함으로써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장소의 이동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 '솔'의 모습을 '푸르'고, '윤택하다'고 표현한 것은 글쓴이가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가진 '솔'이라는 대상에 대한 인상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가)의 '이십일 일'과 (나)의 '7월 3일(금)'은 일기 형식의 날짜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주막 주인'이 '만류'한 일과, (나)에서 여관의 '주인'이 '보름달'이라고 답한 일을 기록한 것은,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얻은 정보를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